

부

록

- 국내 · 외 마을만들기 사례
- 마을만들기 : 성공의 조건

국내 · 외 마을만들기 사례

□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장수마을은 사적 10호인 서울 성곽 바로 밑에 자리잡아 건축 높이 등이 제한되면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면서도 수익성이 낮아 재개발이 무산된 곳임



- 2008년부터 지역시민단체에 의해 대안개발이 모색되기 시작됐고 2010년 마을사회적기업으로 '동네목수'가 만들어지면서 박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기 전부터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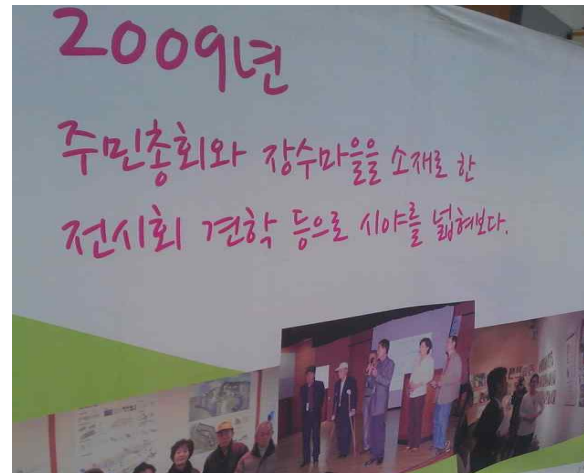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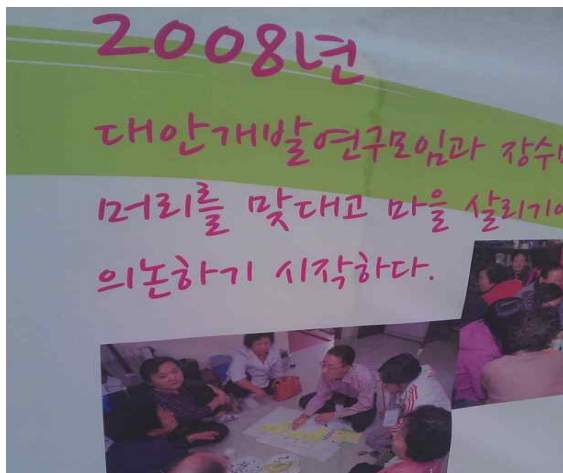


- 그동안 빈집을 활용한 마을카페와 인근 한성대 학생들이 참여한 마을벽화사업, 공방 작업장, 생활공간 공공미술 마을가꾸기 등이 이뤄져 왔으며, 시는 장수마을을 특성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해 서울 성곽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린 특화마을로 조성할 계획

- 마을 전체가 근대 주거생활 박물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마을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고 성곽 주변 빈집을 활용해 예술가 창작공간이나 도성 탐방을 위한 카페, 쉼터 등으로 조성하며, 서울성곽과 낙산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



- 성북구와 장수마을대안개발연구회간 사업지원 협약식 체결 및 마을기업 선정 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일자리 마련
- 성곽 등 문화재 주변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재개발 대신 주택개보수로 주거여건 개선 및 커뮤니티 재생방안 등 대안적 재개발 추진
- 장수마을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모든 과정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합의하고 진행
- 장수마을에서는 매달 주민협의회가 열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으며 전체 주민의 65%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주거 안정성 확보와 편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한창임



□ 전북 완주군 마을공동체 회사 육성

- 완주군은 인구 8만6000의 전주를 둘러싼 도농복합도시, 예산 연 6000억원에 재정자립도 23.5%, 노령산맥과 호남평야의 접경, 만경강 발원 청정지역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자치단체이지만 그 증가세는 미미한 수준이고 완주군 역시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농간 불균형, 농산촌 과소화 및 고령화, 성장동력의 부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서 완주군은 외부로부터의 발전전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내부로부터 지역활력의 동력을 찾는 CB를 도입
- 2007년 자치단체장 일본연수를 통해 CB를 처음 접한 임정엽 완주군수는 희망제작소와 포괄적 MOU를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CB를 연구하고 정책과 제도로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에 돌입. 완주CB센터는 자치단체 단위 전국 최초의 중간지원조직이며 완주군은 2010년 8월 농촌활력과를 신설함으로써 통합적인 정책운영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 2008년부터 마을공동체회사 100개소 운영, 두레농장·로컬푸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그동안 100여개에 이르는 마을사업을 통해 마을사업의 저변확대·정부사업으로의 확대, 법제도·추진체계 정비, 마을사업 1마을담당제·부서장 멘토사업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 등을 진행시킴

-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CB, community business)형 마을회사 100개소를 육성해 지역의 일자리를 2,000개 이상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 차원의 일자리 구도를 재편한다는 계획임

- 마을회사는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돼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격으로 함. 마을이 자체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각 마을당 20개 이상 생길 것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곧바로 마을 주민으로 채워짐



- 이럴 경우 주민들은 농한기와 농번기에 상관없이 상시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 시행한 공동체 사업의 마을의 공동 수익과 주민 개별 수익으로 돌아감

- 특히 농산물에 한정되어 있는 소득의 다양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육성하는 한편, 햄프(삼베)를 활용해 마을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햄프짜지공예반 운영, 삼베사업 주민설명회 등 마을사업과 접목을 통해 마을에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함

- 대규모 투자 없이 지역이 가진 자산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에 환원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더불어 잘사는 마을공동체 조성함

- 마을회사 육성은 지역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를 실현한다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B)를 기저에 두고 있음.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글로벌 비즈니스와는 달리 CB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 지역의 일자리 확대 효과가 있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촌활력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1980년대 초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현재 60조원대로 성장함. 일본도 20조원이 넘음. 일본의 경우 관련 사업체만 8,000여개에 달하고, 2012년에는 고용 인원이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완주군은 이들 국가를 단순 모방하는 것을 넘어, 완주만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복안임. 완주군은 일자리 뿐만이 아니라 농촌의 공동체를 살릴 방도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도입함. 즉 일회적인 일자리와 소득보다는 심각한 고령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도입을 통해 강구했고, 이를 통해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임



□ 마을르네상스 사업(수원시)

○ 마을공동체 시민운동

- (1단계)2011년 지역형 마을르네상스 기반구축
- (2단계)2012년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모델 개발
- (3단계)2013년 이후 도시 르네상스 및 한국형마을 르네상스 전개



- 사업발굴, 계획수립, 시범사업선정 및 시행의 전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
- ※ 경기도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제정2010.12.29)



-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는 민선 5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기구 설치 및 제안사업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주요 내용은 좋은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으로 도시계획등 시 관련 발전계획

과 조화를 이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환경·도시계획·문화체육등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수 있도록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운영한다는 것임

- 또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견학실시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단위 추진주체에 대한 전문가를 지원하여 주민과 전문가,행정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정성과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됨

- 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135개의 공동체 프로그램과 시설공간조성이 주민참여로 1년 반의 짧은 기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것은 철저하게 주민이 중심되고 행정과 민간조직이 협력체제를 만들어 마을리더와 활동가를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주민교육 등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이 동력이 되었음
-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공포 후 서두르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왔으며,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행정가들이 마을 만들기 핵심리더를 격려하고 의견을 가감 없이 받아줌으로써 주민들의 사기를 높였음
- 어르신이 나서서 민들레차도 만들고, 합창단도 만들었으며, 주민센터옥상을 활용해 양봉과 텃밭도 만들었음. 그 결과는 놀랄 만큼 즐거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단위에서 주민, 기업, 시민단체, 행정,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으며,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마을 문화예술 사업, 마을만들기 학습·교육·교류 사업 등 시민이 스스로 디자인 하여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감



□ 서울 도봉구 함께 Green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 함께 Green마을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기 좋은 맑고 푸르른 녹색 성장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푸른 도봉의 이미지와 주민참여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을만들기를 함축적으로 의미함



- 도봉구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으며, 함께 Green 마을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 달에 한 번 구민과 구청장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매달 1회 실시되는 '목요일데이트',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향토, 문화 등을 발굴하고 가꾸는 '우리 동네 보석찾기 사업', 창4동과 방학2동에서 주민들의 열띤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는 '함께 Green마을 만들기 사업', 하천 접근로와 주변 환경을 주민 참여로 개선하는 '방학천 수변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임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자생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 로체스터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

- 1990년대 이후 미국 코닥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자원에 중심을 두고 시민이 시민을, 그룹이 그룹을 돕는 시민참여로 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고민, 액션플랜 수립

- 시 정부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으며, 시민의 에너지와 만나야 한다는 일념 아래 존슨시장은 인구 20만의 로체스터시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눔. 인구 2만 정도로 협력과 참여가 가능한 구분을 하였으며, 섹터마다 로체스터의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개념인 NBN을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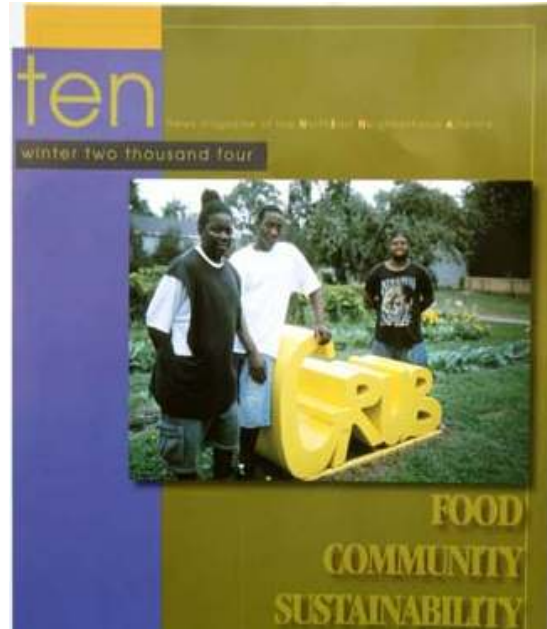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들, 시민단체, 종교기관, 기업, 학교, 재단과 각종 관공서들, 시민들이 직접 NBN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직구조를 구성함. 주민과 공무원들은 매달 섹터 미팅을 갖고, 토론을 바로 정부에 전달함. 시 정부 회의에는 섹터 시민들이 항상 참여하고 투표도 진행함

- 주요 내용으로는 흑인과 라틴계가 주로 모여사는 섹터10의 경우, 실업과 빈곤 늘어나는 빈집으로 슬럼화 되어가는 지역의 폐가를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신선한 식품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을 살리는 일에 효율적으로 역할을 함

- 낙후주택가를 바꾸어놓은 쿠바플레이시는 섹터10의 자랑임. 시는 다양한 자금을 결합시켜 건축업자들과 함께 지역의 빈집을 개발해 우범지역화 되어가는 거리를 안전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바꾸어감

- 섹터1의 가드너씨는 NBN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시티즌 인게이먼트(Citizen engagement)' 즉 시민참여를 의미함. 1994년 당시 섹터 사람들은 매우 창의적이었으며 지역사회를 어떻게 자원을 만들것인지, 또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떤 파트너를 참여시킬것인지, 또 지역을 나누는 문제와 같은 이슈를 발견하고 그것을 대처할 지역자원을 갖고 계획을 구상하는 것에 매우 창의적인 활동을 보여줌



- 지역사회가 무얼 가지고 있는지, 자원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모아내는 것이 NBN 프로그램 실행의 시작단계에서 가장 중요함. 섹터1에서 호세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는 거리를 가꾸는 일을 위해서는 지역기금을 조성하며, 온타리오 호수 근처 조경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그룹을 꾸림
-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없고, 시청 공무원들은 지역에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수없기 때문에 지역에선 지역 주민 자체가 바로 지역을 이끄는 정치가이므로 시민들의 역량과 참여를 강조함



□ 마치즈꾸리 (일본)

-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자원의 공동관리를 지향하는 운동” 또는 “거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여 계획에 주민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의 거주환경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로 마을을 만드는 운동



-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시민자치에 근거하는 지방자치제도로 자리잡은 제도로 지구계획, 마을만들기 협정과 조례로 발전함.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센터(마치즈꾸리센터)가 설립되어 주민자치가 확고히 정착되어가고 있음

- 일본의 나가하마시와 돗토리현의 치즈정의 마찌즈꾸리 추진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마을 有志들의 활약”이었음. 마을의 역사적인 재생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고 외래자본의 유입에 대항해서 스스로 위험부담이 큰 자금을 출자하는 등 그들은 지역유지로서의 도의적 의무를 다했음



- 주민참가형 마을계획은 말그대로 주민들의 적극적, 자주적 참여에 크게 의존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마을 전체를 공동소유 개념으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강조됨. 즉, 주민참가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公共의 意識”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주민참가형 마을만들기의 정착을 위해서, 지역행정은 주민참가의 붐을 조성하고 또 주민들간의 경쟁도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지원)들이 요구하게 됨

- 나가하마시의 예로, 상점가의 경관조성사업의 주민참여 도모를 위해 전통가옥으로 개량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치즈정의 “마을진흥협의회”의 예처럼 “참여와 변화의 의지가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민참여의 붐을 조성하고 또 마을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차원의 전략도 요구됨
-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로는 마을문제지도 만들기, 마을 자랑거리 만들기, 사람 만들기, 주민밀착형 사무소 만들기, 지역우량기업 만들기, 고령자복지 만들기 등이 있음
-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후 각 지역의 자치단치단체들은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자치경험미숙 및 인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 경제가 저성장기에 들어선 이후 대도시와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살기 좋고 매력있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의 市·町·村을 중심으로 「마치즈꾸리(마을만들기)」운동을 꾸준히 전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